

20
6월민주항쟁
1987-2007

6월 항쟁 20년

시민 20만명 “독재타도” 격렬 시위

넥타이부대 합세 금남로 가득 메워

전국의 6월항쟁 이끄는 구심점으로

『이날 광주에서는 오후 4시30분부터 경찰이 도청 앞~한국은행 광주지점 앞까지 금남로 일대에 대한 차량 및 일반인 통행을 완전 차단했다. 대회장인 광주YMCA의 철자한 출입봉쇄 속에 경찰의 경계선 바깥 쪽 곳곳에서 30여 회에 1만4천여 명의 학생·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독포와 순천·여수에서도 20여 회에 3천여 명 등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50여 회에 연인원 1만7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본보 1987년 6월11일자 7면 ‘광주 도심 곳곳에서 격렬 시위’ 제하의 기사〉

‘민주헌법 생취 복도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종렬·이하 도본부)가 주도한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

현철폐 국민대회’가 열린 1987년 6월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는 민주주의를 탐망하는 시민들의 물결이 도도하게 넘쳐났다. ‘6월 항쟁’

의 기록으로 기록된 이날 금남로 시위에 모여든 인원은 1만4천여 명. 80년 5월 군부 쿠데타에 맞서 피를 뿐었던 금남로에 또다시 5월의 후예들이 모여 ‘광주시민 대동단결’·‘군부 독재 타도’를 외쳤다. 총과 칼에 맞았던 광주시민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최루탄 발사와 원천봉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26개 중대 3천500명의 전투경찰을 동원, 대회장인 광주 YMCA를 3중 차단했다.

금남로 3층 이상 건물 67곳은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질 것에 대비 경찰에 의해 출입이 폐쇄됐고, 일부 택시회사들은 경적시위를 막

기 위해 경음기 연결부위를 아예 끊어기도 했다.

오후 2시 중앙교회 사거리에서 첫 집회가 시작됐다. 집회 시작 5분 전 까지도 조용하던 금남로가 집회 시작과 함께 수백여 명의 학생·시민들이 뛰어나오면서 열기를 뿜어냈다.

시민들은 ‘애국시민 동참하라’, ‘호

현철폐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스크립트를 짰다.

금남로 상인들도 나섰다. 대부분 상가를 점지하고 도로에 물을 뿐이나 시위대에 물과 빵을 나눠줬다. 최루가스를 이겨내도록 시위대의 눈 주위에 치약을 발라주기도 했다.

오후 8시. 수업을 마친 중·고등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시위대는 1만

이 위태롭다는 비보를 들은 탓인지 시민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가톨릭 센터에서 나온 100여 명의 신부와 수녀들은 금남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시위에 힘을 보탰다.

“광주시민 대동단결 군부독재 타도자”, “장기집권 호현철폐 군부 독재 타도자” 시위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어 흔들며 80년 5월의 아픔이 서린 도청으로 향했다.

경찰은 마구잡이로 최루탄을 쏘아 댔고, 체포조인 ‘백글단’을 투입했다. 하지만 넥타이부대까지 합세한 시위대는 둘러쳐놓 금남로를 훔쳤었다.

금남로 상인들도 나섰다. 대부분 상가를 점지하고 도로에 물을 뿐이나 시위대에 물과 빵을 나눠줬다. 최루가스를 이겨내도록 시위대의 눈 주위에 치약을 발라주기도 했다.

오후 8시. 수업을 마친 중·고등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시위대는 1만

5 20년 전 광주 금남로는…



지난 1987년 6월2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모인 수만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호현철폐’·‘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여명을 출찍 넘었다.

집회는 ▲광주공원 ▲대인동 공용터미널 ▲중앙대교 등지로 확산

됐고 다음날 새벽 0시40분까지 계속됐다.

금남로에선 이후 26일엔 2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이는 등 연일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계속됐다. 그리고 29일 독재정권은 대

통령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29 항복선언’을 하게 된다.

당시 도본부 배종렬 상임대표는 “금남로 일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해방구였고, 전국의 6월 항쟁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최후의 보루였다”고 회고했다. /끝>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원참
김충우
(7231)

(유로시내 라일락 암 같다)
자경부

(에너지 절약 차원이다)
경기부

(어제는 걸었나?)
나가 알거워야지

(걸어다니는지...
물 좀 타서 쓰는지...)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리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창(062)525-9002 ▶전주창(063)271-5051

6·10 항쟁 정부 차원 첫 기념식

지난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린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 및 정부, 각계 주요 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8일 행정자

/연합뉴스



광주YWCA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여중생 성매수 사건 시민감시단 발대식 및 1차 캠페인’을 열고 ‘성매매 알선행위자 및 성매수 남성들의 명단 공개’ 등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 서명운동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불법 파견도 2년뒤엔 정규직”

사내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 파견이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적용해 2년 뒤에는 원정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

송에서 “근무 기간 2년을 넘긴 김씨

“감금 여중생 성매수

등 4명이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근무기간 2년을 넘기지 못한 3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등 4명이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근무기간 2년을 넘기지 못한 3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씨 등 7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

체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판결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김